

박대석 칼럼

### 은행원과 미래로 가는 대통령 (하)



박대석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같이 안쓰럽다. 그것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여야 한다

미국은 불과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생국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고 한국과 중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준 나라이다. 나아가 브레튼우즈 협약을 통하여 승전국이 패전국을 약탈 정복하는 인류의 나쁜 역사 사례(관습)를 깨고 오히려 모든 상선을 미국이 보호하고 나아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를 자유무역 세상으로 주도한 나라이다. 또 공산 국가들이 침공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리며 한국은 공산 침공세력으로부터 지켜준 나라이다.

다음 대통령은 한미간에 포괄 동맹 이상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정치이념이 같고 오로지 지구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 단일체제로 만들어 대장을 해보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뿐이다.

미국은 당분간 지구의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로서 한국이 1등 국가와 더 가까워진다고 손해 볼 일 없다.

미국은 한국을 미제통일(적화통일이 아니라)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 원칙이다.

오히려 미국의 힘이 동북아에서 약해지는 순간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구한말과 같은 이리 때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역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은 한국을 위해 만들어진 편이다

자본주의 매력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대량생산' 세상은 끝났다.

과거와 같은 GDP 경제 성장 위주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 제로 또는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인류의 경제 구조 패턴이 달라진 것이다.

AI, 클라우드, 로봇, 데이터 등 신기술과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등 디지털의 세상이 촉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무역 대국이 되어 경제 상위국이 되었다. 디지털 세상은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큰 지장이 없다. 우수한 인력과 첨단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 베드(test bed)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상승이 있다.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도세력이 디지털화되지 못했다. 게임 산업을 한국이 한때 주도하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해외로 뺏긴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산업을 한국이 주도하여 개인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육성하면 될 일이다.

쉽게 말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상대로 하여 디지털 판을 짜도록 정부 등 기성세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천연자원 없이 우수한 인재와 훌륭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디지털 산업을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엔진 이후에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당면한 국가 과제는 가장 급한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조기에 집단면역국가가 되는 것이다. 늦어질수록 국민건강 위협, 경기 부진 장기화, 부채 급증, 일자리 황폐화, 청년 세대 단절, 저출산, 주택 및 주식 가격 버블 붕괴, 은행 타격 등

로 악순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사회통합과 갈등 해결,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국제외교 등 한반도 정책,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속 가능한 자유 민주복지국가, 에너지 환경 문제이다.

특히 MZ 세대(15세~39세 사이) 청년의 현실문제 시급한 해결과 미래 비전 제시를 젊은이들의 미래이자 한국 미래에 중차대한 일이다.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은 지금까지처럼 지역, 세대, 진영, 이념을 합종연횡하여 표 계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24년 후 2045년에는 해방 100주년이 된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과연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어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지정학적 관계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고려할 때,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아주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한국이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여 젊은이들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문명을 선도할 실력과 혜안 그리고 배짱이 있는 대통령,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격(格)이 다른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과 함께 그 대통령을 필자 손으로 찍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거를 먹고 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동하는 자유민주주의국의 미래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퀘엔드마크 제공>

사설

### 독거노인 166만명 시대, 노인빈곤대책 마련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를 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이는 전체 노인 절반가량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하철이나 공원에 가면 돈이 없어 점심을 굶고 있는 사람들,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얻어먹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거노인이 대부분으로 소득이 없거나, 수입이 적어서 아쩔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건강이 따르고 일할 능력이 있어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적어 생활이 불안정하니 노년층의 삶도 힘들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다. OECD 평균이 2007년 이후로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 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인빈곤의 해소는 당장 급한 일로써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2021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166만1000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70대 비중이 44.1%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71.9%를 차지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계속 늘어나

는 추세다. 2037년에는 2배 수준인 335만 1000가구, 2047년에는 405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6명 중 1명꼴에 불과한 17%만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하며 3명 중 2명꼴인 67%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지난해 기준 순자산은 3억4954만원이었지만 부동산이 전체 중 80.2%이며 저축은 14%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은 선진국처럼 다층체제이지만 각 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에는 20.3%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이 전망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생활보호대상 노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일자리 알선, 공동사업장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현대 산업사회, 무관심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동네나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늘 만나 대면하면서도 얼굴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취미나 성격, 가치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을 가져 봐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핀잔이나 받는다.

현대인들은 넓은 바다에 뿔뿔이 떨어져 있는 섬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한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같은 도구와 기계의 힘을 빌려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 오늘날 기계와 도구가 점점 더 깊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인간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기계나 도구 때문에 직접 만나 서로 손을 잡고 눈빛을 주고받을 기회는 줄고 있는 것이다.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길들인다'는 말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아쉬움을 느끼는 존재,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우의 말처럼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다면 상대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계와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

해야 한다. 현대 산업 사회는 인간관계가 형식화되고, 사람들의 가치기 물질적으로 평가되곤 한다.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소외'라고 일컫는다. 현대사회는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반성케 하는 철학동화가 어린왕자이다. 천진스런 어린왕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인간사회의 다양한 측면의 부조리를 때로는 느껴온 가슴으로, 때로는 냉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관계'이다. 이 점에서 저자가 '길들이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관계를 알지 않고서는,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도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우가 말하는 친구 파는 가게는 사회를 파괴할 만한 위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런 가게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우가 보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삶의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관심한 타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각자 상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을 타인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FOCUS

### 가을비 우산속

비가 내린 6일 오전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귓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

